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五名坦艺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350호 【루계 제24763호】 주체103(2014) 년 12월 16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 선 로 동 당 제1비서이시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제 1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고사령관이신 경 애 하 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어린이식료품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조 선 로 동 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조선 인민군 총정치국 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장들인 안정수동지, 한광상 동지,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 리재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

ㅣ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하시였다. 맞이하였다.

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가 동행 사랑의 자욱을 새기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 우리의 수령님들처럼 아이들을 가자고 하시였다.

공 장 구 내 에 건 립 된 위 대 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콩우유를 떨구 말씀하시였다.

식료일용공업상 조영철동지를 비롯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는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왕으로 불러주시고 후대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혁 수도의 한복판으로 달리는 콩우유 [

를 많이 생산하여 정상적으로 공급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일떠세워 눈앞에 그려지고 쌓였던 피로가 🖟 경 애 하 는 김정은 동지 께서 는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할 어버이는 세상에 없다고 뜨겁게 주신 평양어린이식료품광장이 풀린다고,그럴수록 장군님의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숭고한 념원을 더 잘 받들어가야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 지 않고 정상적으로 먹이는것은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애기젖가루,영양암가루,각종 남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벽화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형상한 새가루,다시마가루,물고기가루 말씀하시였다. 사적비를 보시면서 2001년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잊을수 모자이크벽화를 새로 정중히 모시여 등 젖먹이시기와 젖뗴기시기 식료 공장에 어려있는 수령님들의 품만아니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성장발육에 좋은 콩우유와 콩산유 를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종 합적인 어린이식 료 품 생 산 기 지 로 전 변 되 였 다 고 말씀하시였다.

경 애 하 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그처럼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에도 공장의 생 산이 중단없이 정상화되였으며 《왕》차로 불리우 는 콩우유차가 수도의 거리를 변함없이 달리는 사랑의 전설이 태여났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 애 하 는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는 후 대 사 랑 , 미 래 사 랑을 길 이 전 해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은정깊은 조치에 따라[차를 볼 때면 콩우유를 먹으며 좋 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대로 콩우유 내세우시며 한평생 어린이들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하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이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 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맡겨진 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고 게 지키는가,사회주의를 어떻게 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 어린이식료품공장은 우리 당이 특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 하시면서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파 고수하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리며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별히 중시하는 공장,온 나라 어머 을 통한 교양을 잘하여 공장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하시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을 높은 깨끗한 량심으로 받들어가고있는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 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우리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충정의 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아이들의 지시하시였다.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자양분이 마음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 종업원들이 현대파학기술로 튼 콩우유를 비롯한 맛있고 영양가높은 끊임없이 가닿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품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생산을 단 말씀하시였다. 진렬실, 콩우유직장, 영양암가루직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사업 찍으시였다. 장,에기젖가루직장 등 공장의 하시면서 이 공장의 생산정상화 당에서 콩을 비롯한 생산원료를 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 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에 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 말씀하시였다.

였다.

문제는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

에서 모든 생산공정들을 만부하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적대 하시였다.

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으로써 품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어린이 강조하시였다. 공장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해마다 우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어떻 영양식품들을 대비분석하여 제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음을 세차계 일으켜야 한다고 식보급기지도 손색없이 꾸리며 공급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

어린이식료품들을 대량생산하고있는 가 울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책동 료품생산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당창건 70돐까지 공장의 현대화

진다는 자각을 안고 생산증산의 튼히 무장할수 있게 과학기술지 식료품을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로동안전규정,위생안전규정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였다.

고 생산을 꽝꽝 내밀어야 한다고 장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모든 생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산공정들을 자동화, 무인화, 무균 혀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돌림으로써 콩우유는 물론 여러가지 세력들은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식 화, 무진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결의를 다지였다.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어린이식료 쥐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공장제 를 완벽하게 실현하여야 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 필요한 새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 니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있는 공장 종업원들이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전체 당원들 과 근로자들은 공장에 찾아오시여 한없

> > 본사정치보도반



앙 신 사 선

선군대양의 불멸의 업적을 민족만대의 재보로 빛내인 력사의 3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에서 세기적변혁 창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을 맞으며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장군님과 피눈물속에 영결한 때로부터 흘러온 3년간 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 혁명위업의 확고부동한 계승성과 불패성 을 힘있게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쳐온 격동적인 나날이

력사의 이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령도자 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영원불멸성을 만천하에 과시하며 선군조선의 만년토대를 확고히 마련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질풍쳐달

리며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고립압살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불패의 군력을 백방으 로 강화하였으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을 세차게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에서 세기 적변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

혁명생애와 업적을 민족만대의 재보로 빛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어버이장군님의 전사,제자들의 순결한 도덕의리를 력사의 3년과 더불어 후세에 길이 전한다.

숭고한 충정과 도덕의리로 두 산 대 국 의 원 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천만군민의 숭고한 충정과 도덕의리에 받들려 백두산 대국의 영원한 태양으로 빛을 뿌리고계신 다는 철리가 력사에 새겨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여 어버이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 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 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 자》,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

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등 지난 3년간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 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 하시고 인류자주위업실현의 불멸의 기치로 빛내이시였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 바로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 의 전략이라는 사상을 천명하신것은 수령

영생위업실현에 쌓으신 특기할 공적이다. 천만군민은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선군태양은 영원히 빛나며 이 땅우에 어버이장군님의 혁명력사가 변함없이 줄기차게 흐르고있음 을 확신하였다.

어버이장군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이 전당, 전국가적으로 진행되였다.

주체100(2011)년 12월 30일에 진행 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어버이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진군길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와 《조선의 힘》노래가 힘차게 울려퍼졌다.

2012년 4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으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되고 우리 나라 사회주 의헌법이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정식화되

이것은 백두의 대업을 한치의 드림도.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 의 표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수산기념 념관과 훌륭히 꾸려진 조국해방전쟁참전렬

지칩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 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부조건 끝까 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선군태양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궁전을 더욱 훌륭하게 꾸릴것을 발기하시 고 수십차례 현지에 나오시여 구체적인 방 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으며 어버이장군님

의 동상과 태양상들을 정중히 모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금수산기념궁전이 《금수산태양궁전》 으로 명명되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졌 다. 어버이장군님의 서거 1돐을 맞으며 개관된 태양의 성지를 수많은 인민군장 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끊임없 이 찾아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마음속대 화를 나누며 혈연적뉴대를 더욱 두터이

하고있다. 태양절 100돐을 맞으며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함께 정중히 모신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 최상최대의 영광이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불타는 맹세를 안고 연 2 000여만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만수대언덕을 찾았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국가과학원, 만수대창작사, 강원도, 함경 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등 각지에 어버이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들을 정중히 모시고 영생탑들을 건립하였다.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만년토 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영웅칭호와 대원수칭호, 김일성훈장, 김일성상을 수여해드리였다.

공화국의 최고훈장과 최고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신 김정일훈장, 김정일상,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 예상이,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이 제정되 였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 특기할 6월명절 과 선군절을 뜻깊게 기념하게 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세세 년년 더욱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에서 한생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의 선군업적을 길이 전하 며 《철령은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입 니다. 김정일》이라는 명제가 철렁도 로입구에 모셔지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이라는 글발이 증산군 석다산 천연바위에 새겨졌다.

위인칭송의 대보물고인 국가선물관이 일 떠섬으로써 절세위인들께서 우리 인민과 온 겨레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뜨겁게 보여주었다.

혁명의 대성인, 걸출한 혁명가, 불세출 의 위인이신 김정일동지는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으로 빛나며 영생하고계신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강화의 최전성기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으로 물려주신 일심단결을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우리 당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기 위한 토대

가 더욱 튼튼해지고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계기로 당의 조직사상적기 초가 억척으로 다져지고 사상사업의 중요 성이 재인식, 재확인되였으며 사상사업에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가 마련되였다.

삼지연혁명전적지, 마두산혁명전적지, 유평혁명사적지를 비롯한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는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고 만늘 수도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주체의 혁명전통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당선전 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자!》의 전투적구호밑에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 사상공세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계급교 양. 도덕교양의 4대교양사업이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어졌다.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올해에 진행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군력강화에서 일대 비 약을 안아오며 백두의 혈통을 이어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 념의 구호를 심장에 쪼아박고 백두의 칼바 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지며 전국당책임일 군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답사행군길을 줄기차게 이어갔다.

전승 60돐을 맞으며 최상급의 종합적인 교양거점으로 전변된 조국해방전쟁승리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사묘, 각지 인민군렬사묘들을 인민군장병들 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끊임 없이 찾으며 1950년대의 투쟁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갈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2013년 1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계기로 당의 유일적령도를 거세하려들던 현대판 종파들이 단호히 적발분쇄되여 당과 혁명 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 더욱 순결해 지고 백배해졌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은 승리의 한길을 따라 활력에 넘쳐 전진해나 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숭고한 인민관, 후대판으로 일심단결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시였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 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는 조선 로동당활동의 근본초석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피눈물의 언덕에서 인민의 리 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전설같은 인민사 랑의 정치를 펼치였으며 당의 뜻을 받들고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것이 일군들의 절대적인 사업기풍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1월 은정어린 물고기를 받고 감격과 기쁨에 넘친 원아들 과 과학자들의 사진을 보고 또 보시며 정 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 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한자한 자 쓰신 친필글발은 어버이장군님의 인민 사랑의 뜻을 어떤 높이에서 정히 받들어야 하는가를 가슴뜨겁게 보여주고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백차에 걸쳐 찾고찾으신 조국땅 방방곡 곡의 현지지도길에서 더해만 갔다.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줄 창조물들과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될 때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였다고 그토록 기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 은 천만군민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온 나라의 축복을 받으며 성대히 진행된 소년단원들, 청년들의 대축전과 어머니들의

대회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길이 전하고있다.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받들어 군력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졌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2012년 1월 1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 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어오신 선군의 길을 천만장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드팀 없이, 끝까지 이어가시려는 천출명장의 의지의 선언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강성국가 건설위업수행에서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 화하는데 기본을 두시고 당의 령도따라 생눈 길을 앞장에서 헤치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키워주시였다.

백두의 선군령장께서 찬바람, 눈비를 맞으시며 깊은 밤,이른새벽에도 끊임없이 이어가신 최대열점지역 섬방어대들의 풍랑 사나운 배길과 판문점, 까칠봉의 최전연초 소길들, 험한 철령과 오성산의 152굽이 칼벼랑길을 비롯한 전선길은 군력강화의 만단사연을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직지도 하신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제3차 대대 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전군선전일군회의 를 비롯한 전군적인 회합은 오중흡7련대의 고귀한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며 모든 중대들을 군인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만들 고 대대를 당중앙위원회의 뜨락과 잇닿아 있는 정든 고향마을로 전변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병사들 한사람한사람을 곁에 세워 영광의 기념사진 도 찍어주신 숭고한 화폭들과 평범한 전사들 의 묘주가 되여주시고 군인가족들을 총잡은 남편들의 믿음직한 부사수로 내세워주신 크

위대한 유훈 빛나는 강성번영의 새시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강성국 가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타오른 새 세 기 산업혁명의 불길은 새로운 주체100년 대의 총진군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 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 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 이 제시됨으로써 선군조선의 자주적존엄을 영원히 수호하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보다 큰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 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과학기술을 강성국가건설 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최첨단돌 파전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2012년 12월 12일 100% 국산화된 주체의 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른것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이 안아온 5천년민족사 의 특대사변이였으며 전인민적대경사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 을 들여 마련해주신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신적안목 을 지니고 런하기계개발자들은 CNC공작기 계본체가공용어미기계인 복합가공중심반을 완성하여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구성공작기계공장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 로 10축복합가공반을 개발하고 10월8일공 장과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이 우리 나라 산업시설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 으로 일떠선것을 비롯하여 첨단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 수자화된 공장으 로 전변된 천리마타일공장, 천지윤활유공장 과 같이 국산화가 실현되고 과학기술과 생산이 밀착된 단위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

은정과학지구와 쑥섬에 첨단과학기술개발 및 보급기지, 과학기술전당이 꾸려지고있으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게 될 경제개발구들이 건설되고있다.

건설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 대비약의 불길로 타 이에 맺어진 혼연일체의 참모습이였다.

인민군대의 전투훈련과 싸움준비완성에 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

부대, 구분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판철정형을 알아보시고 전쟁은 언제 한다는 광고를 내고 하지 않 는다고 하시며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주시였다.

군종, 병종, 전문병, 화력단위별 종합전 술, 현합협동훈련 등 각종 훈련들이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 전군에 명사수, 명 포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부대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훈 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이 개선되고 주체적 인 군사전법과 전투행동방식, 전투조법들이 더욱 완성되였으며 모든 군인들이 진짜배기 싸움군, 백두산호랑이로 준비되고있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한 군종으로 강화 발전된 주체의 해군, 항공무력은 무적필승 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초정밀화된 우리 식의 위력한 첨단전투 기술기재들이 개발완성된것을 비롯하여 강성국가의 제일보루인 자위적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일뗘세운 자랑스러운 애국적창조물들이 갈수록 늘어 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선군혁명의 천하지 대본인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더욱 과시되 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펼쳐주신 선군의 길을 따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밑에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 로 높이 들고 나아가는 김일성, 김정일혁명 강군은 필승불패이다.

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에만 도 연 100여차에 걸쳐 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 등을 찾으시며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 전체 군대 와 인민에게 보내신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애국의 호소문을 받들고 대비약적혁신이 런이어 일어났다.

인민군대를 척후대, 핵심력량으로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판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군인건설자들은 결사판철의 투쟁으로 10개의 스키주로들과 자연풍치에 어울리는 매혹적인 호텔을 포함한 마식령스키장을 최단기간내에 일뗘 세움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 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였다.

당중앙의 전투적호소에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세포등판개척자들은 허신적인 투쟁으로 5만여정보의 등판개간을 끝내고 수만정보의 풀판을 조성하여 세계굴지의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건설에서 새로운 시대속도, 조선속도가 창조되였다.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내달려 몇년이 걸려야 한다는 방대한 공사를 2개 월 남짓한 기간에 전국의 본보기, 표본으 로 끝낸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주력군인 우리 인민군대만이 이룩할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다.

문수물놀이장과 릉라인민유원지,미림 승마구락부 등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사 회주의문명국의 상징으로 끊임없이 솟아 났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 육자살림집이 희한하게 일떠서고 은하과학 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 양소,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평양육아원, 애육원 등이 일떠서 당의 과학 기술중시사상과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길이 전하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경제강국

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에서 유기농 법이 적극 도입되고 분조판리제의 우월성 이 높이 발양되여 성과가 이룩되고있으며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온실남새생산의 전형단위로, 온 나라의 본보기농장으로 꾸 려지고있다. 고산땅에 대청춘과원이 솟아 나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펼치였다. 황해남 도의 수만정보의 농경지와 간석지논에 판 개수를 충분히 대주게 될 자연흐름식물길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이 앞장에 서서 만선 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조국 의 산과 들을 황금산, 황금벌로 전변시키 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받들어 조국의 바다에서 황금해의 력사가 시작되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평양 시를 주체조선의 수도, 선군문화의 중심지 답게 더욱 웅장하고 풍치수려하게 꾸리는 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와 마을을 강성국가 의 문명이 꽃피는 사회주의선경으로 만들 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합장강과 보통강일대가 선경으로 변모되고 수도에 펼쳐진 새 공원들을 본보기로 하여 전국각 지에 수백개의 공원, 유원지들이 새로 꾸려 져 로동당시대의 이채로운 풍경을 펼치였다. 현대적인 강성원, 봉화원을 비롯 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있다.

조국의 미래, 백년대계, 만년대계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인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이 전군중적운동으로 벌어지는 속에 국토관리 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문화건설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이 활짝 꽃펴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 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힘있게 다그 쳐지고있다.

당의 숭고한 조국판, 후대판, 미래판이 구현되여있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여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 의교육제도의 참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20세기 문학예술혁명의 전통을 이어 모란봉악단이 주체예술의 발전면모를 과시 하며 총진군을 선도하고있다. 젊음으로 약 동하는 힘과 열정을 안고 폭풍쳐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반영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음악들이 수도 평양과 백두산전 구를 비롯한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조국찬가》, 《내 심장의 목소리》, 《바다 만풍가》, 《철령아래 사과바다》, 《근위부대자랑가》. 《승리는 대를 이 어》 노래를 비롯한 시대의 명작들이 수많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에 따라 체육발전 을 위한 투쟁이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 으로 전환되여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어 번지고 국제경기우승의 환희로 들끓었다.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은 지난 3년간 200여차의 국제경기들에서 400여개의 금 메달을 쟁취하고 존엄높은 람홍색공화국기 를 높이 휘날리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대국상의 슬픔 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산악같이 일뗘서 전진해온 지난 3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조선혁명의 생명선이며 불멸의 태양기높이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우리 의 대진군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선군태양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과 업적을 영생불멸의 진리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이 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 백두산대 국의 최후승리를 빛나게 이룩하고야말것 이다.

주체103(2014)년 12월 15일 평 양

경 애 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전문을 보내여왔다 로 동 당 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하

인사를 드립니다.

수리아아랍인민의 마음을 담아 각하께 이 전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정일각하의

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친선적인 귀국지도부와 인민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위대한 로선과 역할에 대하여 잊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김정일각하를 위대한 투사로, 진정한 애국자로, 조국과 인민, 혁명을 수호하신 수령으로 영원히 추억할것입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 리 아 아 랍 공 화 국 대 통 령

알 바샤르 아싸드

2014년 12월 14일

디마스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기네공화국 대통령과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윁남특명전권대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여러 나라 정당, 단체, 인사들, 해외연고자가족들이 꽃바구니 진정

여러 나라 정당.단체 대표단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알파 꼰데 기네공화국 대통령이 꽃 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의 동상에 15일 꽃바구니가 진정되 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15일 주조 세계식량계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를 추모하여 우간다, 적도기

네, 민주꽁고 정당, 단체 대표

단이 2일과 5일 해당 나라 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구, 유엔아동기금대표부 성원들, 팜 있었다. 3돐에 즈음하여 만수대언덕에 높이 비엣 흥 윁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 전권대사와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 족인 정일심동포가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으며 민족만대 의 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 하시여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김정일각하는 영생하실것이다》라는 받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 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 세계보건기구, 유엔식량 및 농업기 께 계신다》등의 글발이 씌여져 진달래아동기금 회장 진달래 싸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민주꽁고 재건 및 민주주의 를 위한 인민당 전국집행위원회, 베 닌사회주의당-바아니뗴에 중앙위원 회,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아까데미야 협주단, 로씨야 엠. 예. 뺘뜨니쯔끼 명칭 국립아까데미야민속합창단, 로 씨야 이고리 모이쎄예브명칭 국립 아까데미야민속무용단, 스위스조선 위원회, 전 쏘련국방상 데. 뗴. 야조 브원수,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기 듀프르,

리니와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 지의 가족,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주보중의 딸 주위가족, 재중항일혁 명렬사 김철가족, 재중항일혁명투쟁 연고자 김순옥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의 동상에 15일 꽃바구니들이 진정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생하실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전세계 진보 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 다》,《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십니다》등의 글발이 씌여져 있었다.

> 도기네민주당대표단 성원 들과 민주꽁고인민혁명당 대표가 꽃바구니와 화환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正 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태양상,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항쟁운동과 범아프리카운동 우간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우간다전국 다전국집행위원회 합동대표단, 적

바

【조선중앙통신】

김 정 일 동 서 거 3 **돐** 에 즈 음 하 여 령 도 자 **XI**

행 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국가우표발행국에서 는 우표들을 발행하였다.

우표들(개별우표 1종, 소형전지 1종)에는 한평생 혁명의 붉은기를 높 이 드시고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 길을 헤치시며 우리 민족사와 인류

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천만군민 의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반영되여있다.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의 사진문헌을 모신 개별우표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주체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 대를 마련하여주신 절세의 애국자의 거룩한 위인상과 어버이장군님따라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천만리길을 가 슴뜨겁게 돌이켜보게 하고있다.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태양 궁전의 전경을 담 고있다. 소형전지는 수령 영생위업실현에 바 쳐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결한 도

덕의리심과 령도자

와 인민사이에 맺

어진 혈연적뉴대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

이 씌여진 소형전

지는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얼마나 진실하고 공고한것인가를 절감하게 하고있다. 우표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 리를 향하여 억세게 투쟁해갈 천만 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해

주고있다.

卫

충정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 에 즈음한 청년학생들의 회고무대 《대를 이어 충정을 다하렵니다》가 1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설화와 합창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회고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국과 혁명,시대와 력사앞 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회고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은 청년문제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 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독창적인 청 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펼치시여 우리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들의 대부대로 억세게 키워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녀성중창과 합창 **《**아 그리워**》**가 장 내에 울려퍼지는 속에 무대에 나선 신 의주수산협동조합 관리위원장 고성 욱, 교육위원회 국장 윤희섭, 온천군협 동농장경영위원회 초급당비서 리혜성 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넘겨 주신 혁명의 홰불봉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수백만 청년전위들의 심장마다 에 충정의 불길로 더욱 거세차게 타오 르고있다고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로력영웅들인 한복길, 장영팔, 성 락은, 최용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청 년들이 사회주의대고조의 전구마다 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고 강조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한해에 무려

या है । अ इंस्डिय में से से प्र

3차레나 대학을 찾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한 김일성종합 대학 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박성철 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가자들은 우 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교육 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크나 큰 격정속에 돌이켜보았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리금성, 신의주 신발공장 로동자 김명희, 금성정치대학 학생 오예경은 어릴적 자신들의 자그 마한 충정의 싹도 소중히 여기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영광의 최절정에 내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은정 에 대하여 감동깊게 이야기하였다.

금야군 원평고급중학교 학생 류소 금, 대홍단군 서두고급중학교 학생 민 홍단, 락랑구역 승리고급중학교 학생

리경연, 강반석혁명학원 학생 리축복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가자들은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지 못해하였다.

어버이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력사는 이 땅우에 영원히 흐르고있음을 토로한 김정숙평양제사 공장 로동자 김정향, 성흥혁명사적지 관리소 책임강사 림순금, 룡천군 신암 협동농장 농장원 김영희, 사리원방직 공장 로동자 오명춘, 덕천탄광 리수복 청년돌격대 대장 변영남, 김보현대학 학생 리철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 슴을 세찬 격정으로 끓게 하였다.

이어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문철,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국장 김 영철,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초급청 년동맹위원장 김영일, 회안탄광 차광수 청년돌격대 대장 리성훈, 장천남새전문 협동농장 초급청년동맹위원장 곽철성,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분초급청 년동맹위원장 조현철, 4. 25체육단 탁 구선수 김정이 무대에 나섰다.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 성해나갈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합창 《우리는 맹세한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로 회고무대는 끝났다.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수길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승두 교육위원 회 위원장,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 들, 접견자, 연고자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강성국가건설의 받들어 핵심부대, 선봉대의 영예를 높이 떨쳐나가자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결의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 하여 언급하였다. 에 즈음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 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결의모 임이 15일 중앙로동자회판에서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 해동지와 직맹일군들, 로동계급과 직 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추모하여 묵상하

모임에서는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양시직맹위원 장 김경수, 광복지구상업중심 로동자 송영옥,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박사 부교수 박금돌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 로동계

급과 직맹원들은 주체의 선군태양이 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절절 한 그리움에 휩싸여있다고 말하였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강 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온갖 험난한 길을 헤치시며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해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생결단의 선군장정이 있어 우리 조국은 정치군사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경이적인 사변들 이 다계단으로 일어났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동계급을 강성 국가건설의 핵심부대, 선봉대로 내세 워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직 업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 며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 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과 구상을 빛 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갈 불타는 결 의를 표명하였다.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실것 이라고 말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결사 옷호보위하며 어버이장군님의 유훈 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 보도 없이 결사관철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각급 직맹조직들이 당의 유일적령도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파감히 벌리며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 칙,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견지해나 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 교양, 도덕교양의 5대교양을 강화하 여 동맹원들이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 의 위인상을 심장깊이 체득하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을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 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할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모든 초소마다에서 조선속도창 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 며 집단적경쟁운동으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최첨단돌파전으로 지식경제강국건 설을 다그치고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우리 조국을 과학기술강국, 사회주의문명 국으로 빛내여나가는데 적극 이바지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생애와 불멸 의 업적을 천만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최 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선 0

3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이 8일 해주항에 정박하고 以는 감모쟈국적선박 **《**해흥2》호에

힜

진행되였다.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뿐아니 라 세계 진보적인류는 가장 경건한 마음 으로 그이를 추모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와 인류의 자주화위업,세계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걸출한 수령이시였다고 강조하였다.

> 조선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 여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신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 을 빛나게 계승하신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 동당을 강위력한 불패의 당으로 강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장구한 기간 화발전시키시고 강성번영의 만년토

탁월한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선 을 수호하시였으며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세기와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하였다.

행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성국가건설념원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찬란한 현실로 꽃퍼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Dr-allb-allb-allb-allb-allb-allb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면서 사회주의 대를 마련해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한겨울의 강추위 도 덕 의

제281호

주체103(2014)년 12월 12일

HICKORY STATE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 범 준 법 단 위 칭 호 를 수 여 함 에 대 하 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 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고 우리의 국가사회제도 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 🛮 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모범을 보인 다음의 🖁 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한다.

전천탄광 공무직장 운곡탄광 상차중대 서평양려객역 동림역 태천군 은흥청년발전소

강계돼지공장 룡전과수농장 과수제4작 업반

곽산군 고미양협동농장 청년

곽산과수농장 제6작업반 덕성사과농장 청년작업반 구장군 룡철협동농장 제4작

축산작업반 화평군목제품가공공장 희천고려약공장 신포시 풍어협동농장 농산제 2작업반 희천기름공장

정평군농기계작업소 신창수산협동조합 선천군체신소 전천군상업관리소 우시군세멘트공장

화평군 배움의천리길고급중 학교 함흥시 성천강구역 성남소학교 남포출하도매소 함경남도해사감독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260호 주체103(2014)년 12월 12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 준과 과학지식수준을 높여 맡겨진 인민경제계 위원회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생산문화,생활문화확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립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26호모범기대 힘있게 벌려 기계설비와 생산굥정의 현대 영예상,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다음과 같이 화, CNC화를 다그치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 수여한다.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대홍단감자가공공장 분탕직장 초산포도술공장 압록강려관 창광산호텔 평양호텔 경흥관 26호모범기대영예상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공작

기계직장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루 직장 대안친선유리공장 포장직장 청룡차량대 전기기관차 《붉은기》 5088호 수도건설위원회 칠골기동

려단 2대대 송림해운사업소 달천영예군인료양소 신원군옷공장 인민봉사총국 영광거리내포 국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는 모든것을 얼구 어버렸다. 땅도, 흐 르던 강물도, 하지 만 얼구지 못한것이 있다.

을 안고 영농전투에 떨쳐나선 평 원군 삼봉리당위원회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불같은 마음이다. 물길가시기전투를 앞둔 어느

날이였다. 그와 관련하여 일군 들이 세운 전투목표를 따져보 던 리당비서 김창준동무는 물 \bigcirc 길 전구간이 아니라 부분적으 로 물길가시기를 하도록 세워 진데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일 부 일군들은 로력사정이 긴장 하여 별도리가 없다고 하였지 만 그렇게만 볼일이 아니였다. 리당일군의 머리속에는 며 칠전 거름생산전투장에 나갔 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니라 실천이여야 한다고 하면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 서 질통을 지고 맞들이를 들 고 걷는것도 성차지 않아 뛰 여다니던 농장원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다.그 순결한 마음이 그대로 높은 실적으로 이어지고있었던것이다.

평 원 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합

그때를 돌이켜보며 리당일 군은 농장원들의 가슴마다 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실천에서 높이 발휘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잘 짜고들면 결코 로력이 문 도덕의리는 그 어떤 말이 아 제로 될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 누구의 심장에 먼저 불을 달아야 하는가. 리당위원회일군들은 개천-

삼 봉 리 당 위

태성호물길이 바라보이는 곳 장 김인혁동무를 비롯한 모든 에서 작업반초급일군들의 격 식없는 모임을 열었다. 초급일군들은 우리 식 관개

체계의 본보기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로고가 가슴 쳐와 눈굽을 적시였다. 이런 그들을 둘러보며 리당일군은 말하였다.

《자연흐름식물길이 더 큰 은 을 내게 하자면 물길가시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 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로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주저앉 겠습니까. 우리 일군들부터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실천으로 빛내 대오의 앞장에 섰다.

원 회 에 서 여나가는데서 앞장선다면 돌 파구가 열릴것입니다.》 그의 호소에 제4작업반 반 집중적인 방법으로 해제꼈다.

초급일군들이 호응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전면적에 걸쳐 물길가시기를 통이 크게 벌려 나가기 위한 전투목표가 다시 세워지게 되였다.

에 대한 그리움으로 불타는 대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심장은 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 한 선전선동사업에 큰 힘을 넣 어 전투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바람을 걷어안고 펄럭이는 붉은기, 전투장 곳곳에 세워놓

관리위원장 장철진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였다.

은 수십점의 표어들…

목표는 열흘동안 에 수십km구간의 물길가시기를 끝내 는것! 조건이 제일 나쁜 제4작업 반구역에서부터 한개 대상씩

일군들이 앞장서니 대중의 열 의는 더욱 높아졌다. 이동식속보판에 혁신의 새

소식들이 연방 나붙었다. 강추위는 계속되였지만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 리당위원회는 어버이장군님 로, 유훈판철의 의지로 불타는

> 더욱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런 충정에 떠받들려 한달 이 걸린다던 물길가시기는 열 흘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

> 으로 끝나게 되였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숭고 한 도덕의리심이 낳은 실적이

> > 본사기자 손 영 희

순 결 음, 천

첫 는 하루일을 시작하 기 전에 진행하는 바로 출근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 의 현지지도사적비 일 앞에서 불같은 결의 를 다지고 하루일을 \bigcirc

진

시작하는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이들 □ 의 첫 일파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 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김정숙평양제사 느일터에 가보아도 시간 공장 종업원들에게 마다 전해지는 혁신의 새 소식을 들을수 있고 생산 적앙양으로 들끓는 공장 하나의 굳어진 일과 의 뜨거운 숨결을 느낄수 가 있다. 그것이 있다.지난 3년간 해마 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비결이 바로 첫 일과에 있다고 하는 종업 원들의 말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첫 일과, 그것은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어버이장군님 에 대한 그리움과 숭고 한 도덕의리심으로 가슴 불태우며 삶의 하루하루 가슴 불태우며 일터마다 를 값높이 빛내여나가는 이곳 종업원들의 충정 의 세계가 비껴있는 순 결한 량심의 거울이 아 하기에 공장의 그 어 니겠는가.

2.8**직동청년**탄 광 일군들을 만나기 시기에는 아무때나 사무실에 찾아가면 쉽게 만날수 있던 일군들이였다. 탄광 도 그 탄광, 일군들 **관** 도그 일군들이지만

지난 3년간 그들은 사무실형으로부터 화선형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꾸었다. 그들은 지난 3년

大 간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 리심이 어떻게 발휘 되여야 하는가를 불같은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에서 탄부들과 함께 땀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 들도 대책을 세워주는데 를 들이대고 풀어나갔으 며 뜻밖에 막장이 붕락 되였을 때에는 제일먼저 뛰여들어 전투를 벌리는 희생정신도 발휘하였다.

그러니 이런 일군들을 대중이 왜 따라나서지 않겠는가. 화선에 나가 앞채를

메고 대중을 이끄는 기 과차!

이것은 어버이장군님 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 언제나 들끓는 전 투장에 자기 진지를 차 지하고 말보다 실천으로 정치사업을 해도 막장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 켜나가는 직동의 일군들 을 흘리며 하였고 석탄 에 대한 대명사이다.

기 대한 그녀고 기가 다음 기가 기가 되고 하다. 대한 그리움이 더 가과학원 생불공학 분원의 과학자들은 **조** 잠들줄 모른다.

그들의 가슴마다 에는 우리의 과학 이 자,기술자들은 나 라의 귀중한 보배 들이라고 하시며 3년전 1월의 강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기들의

샘 일터를 찾아주시였 던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하기에 영광의 그날을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가슴에 안고 지난 3년 세월 숭고한 도덕의리의 낮과 밤을 불태워온 그

어버이장군님에 들이다.

그들은 열백번 쓰러졌 다가도 다시 일어나 새로 운 힘과 용기를 가다듬으 며 끝끝내 인민생활향상 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주는 첨단수준 의 여러건의 연구과제들 을 완성하는 기적을 창조 하였다. 그리고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더 큰 승 리에로 탐구의 초행길을 과감히 헤쳐나가고있다.

그리움! 그 것 은 어버이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최첨단돌파전에서 세인 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게 하는 마를줄 모르는 샘이다.

윤 명 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친다

함남의 불길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리겠습니다

피눈물의 12월의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함경남도 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 는 그리움으로 더욱 가슴을 끓 이고있다.

영원히 잊을수 없다. 3년전 1 2월 9일과 1 0일 눈보라 휘몰아치는 추운 날씨에 함흥시 를 찾아오시여 불면불휴의 로고 와 헌신의 거룩한 자욱을 새기 신 어버이장군님, 날씨가 더울 때 다시 오겠다고 하시며 차창 을 열고 손저어주시던 그날의 모습이 우리 장군님의 함경남도 에 대한 마지막현지지도가 될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불과 두달전인 그해 10월에 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천 지구로부터 흥남지구에 이르기 까지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 산, 2. 8비날론련합기업소, 흥 남비료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 합기업소를 비롯한 10여개에 달하는 중요광산, 공장, 기업소 들을 돌아보시면서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 한 투쟁에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시

던 위대한 장군님, 나라의 경공업발전과 인민생 활향상에서 함경남도가 차지하 고있는 몫이 대단히 크다고, 그 래서 자신께서는 함경남도사업 에 대하여 마음을 많이 쓰고있 다고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에 넘친 그날 의 교시가 오늘도 함남로동계급 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경남도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 고있다고 하시면서 지난 시기 라남의 봉화,성강의 봉화를 따라 혁명과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한것처럼 이제부터 는 함경남도에서 타오르는 대고 조의 불길, 다시말하여 함남의 불길을 따라 전국이 일어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

함남의 불길!

하시였다.

진정 그 불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나라 천만의 심장마다에 지펴주신 애국의 불길,투쟁과 위훈의 불길이 아니던가.

지난 3년간 합경남도 일군들 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함남의 불 길을 높이 추켜들고 일터마다에 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 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

단천지구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더 높은 증산성과로 빛내일 불타는 일념안고 비약의 한길로 힘차게 줄달음쳐왔다. 검덕과 대흥, 룡양, 단천의 로동 계급과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 들은 군민련합작전의 위력으로 태풍 1 5호의 엄청난 피해를 가 시고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왔으며 륙해운성 일군들,

로동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가며 단천항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승리의 배고동소리를 더

높이 울려나갔다. 단천제련소와 단천마그네샤 공장, 단천광산기계공장의 일군 들과 로동계급은 최근 몇해동안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 에서 통이 크게 다그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일터를 더욱 훌륭히

꾸려놓았다. 새 세기에 여러차례나 흥남비 료련합기업소에 찾아오시여 현 대적인 물전해공정과 가스화공 정을 갖춘 위력한 비료생산기지 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 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흥남의 로동계급은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하여 올해에 시비년도비료생산계획

진입하여 런일 혁신을 일으켜나 가고있다. 몇해전 3월 온 나라의 대경 사를 안아온 현대적인 비날론

을 빛나게 넘쳐 수행한데 이어

설비집중대보수를 끝낸 기세로

새 시비년도비료생산전투에

농장을 비롯한 북청군과 덕성군 함경남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과수농장들의 일군들과 근로자 들은 3년전 5월 사과꽃피는 공장준공을 경축하는 함흥시군 중대회에 참석하시여 화호하는 포전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였 던 그날의 영광을 가슴깊이 새 함흥시민들과 로동계급에게 겨안고 해마다 새 품종의 사과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나무밭조성과 과일생산에서 삼가 우러르며 2.8비날론련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생산공 정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비날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몸소 기업소에 찾아오시여

영웅적인 기업소라고, 우리에게

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와 같은

대규모기계제작기지들이 있어

무서울것도, 점령 못할 요새도

없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오늘도 귀

전에 뜨겁게 울려오는것만 같다

고 하면서 룡성의 로동계급은

장군님의 그 믿음에 압축기와

지열설비, 발전설비, 대상설비

증산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지혜

금야청년탄광과 함남지구

탄광련합기업소 탄부들도 석탄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크나큰 은정속에 동해지구의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편직물

생산기지로 새로 꾸려진 함흥편

직공장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함흥모방직

공장에서도 올해에 질좋은 인민

룡전과수농장과 덕성사과

소비품들이 쏟아져나왔다.

와 정열을 다 바쳐왔다.

있게 벌렸다.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어찌 이들만이겠는가.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영광군 관수협동 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협동농장 들에서는 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앞선 단위들을 따라앞서 기 위한 맹렬한 사회주의경쟁을 벌려 해마다 농업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안아왔다.

로동계급의 도시 함경남도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도 눈부신 전변을 펼쳐보이고있다.

함흥물놀이장이 새로 건설되 고 마전유원지개건공사, 함흥과 학자지구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시, 군들마다에 로라스케트장, 배구장, 롱구장 등을 갖춘 체육공원, 미래원, 은덕원들이 일떠서거나 개건 되여 도안의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향상되고있다.

1 2월의 이 아침 도의 일군 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드높 은 열의를 안고 심장의 맹세를 다짓다.

어버이장군님, 저희들은 언제 나 함남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켜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 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의 맨 앞장에 서겠습니다. 특파기자 박동석 청 봉 혁 명 전 적 지 관 리 소 에 서

북방의 강추위는 맵짜 다. 살을 에이는듯 휘몰 아치는 눈보라, 우-우-울부짖는 천고 밀림, 그속에서도 성스 🔼 러운 혁명전적지를 지켜 **글** 간다는 더없는 긍지와 영예를 안고 청봉혁명

HH 은 자기의 임무를 성실 출 하게 수행하고있다. 그들속에는 길선희, ┗ 길경희동무들도 있다. 그들은 자매강사로 관리

소뿐아니라 답사자들속

전적지관리소의 강사들

에도 잘 알려져있다. 이들은 처녀시절부터 가정부인이 된 오늘까지 백두산의 만병초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혁명전적지를 □ 🔼 지켜가고있다. 사실 엄혹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

다. 제손으로 밥도 짓고 孝 불도 때야 하고 때로는 눈보라와 비바람, 폭설 과 큰물로부터 혁명전적 지의 귀중한 모든것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본새로 자기들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있다. 이들의 가슴속에는 이 세상 천만부모의 사랑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지금으로부터 14년전 주체

89(2000)년 3월 길선희, 길경희동무들은 너무나 뜻밖에 건창숙영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에서 만나뵈옵 는 더없는 영광을 지니였다.

피어린 항일전의 하많은 사연 을 전해주는 숙영지를 돌아보시 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더니 강사들의 신발에 눈길을 주시였다.

발이 시리지 않은가고 다정히 물으시는 어버이장군님께 길선 희동무는 격정에 젖은 목소리로 발이 시리지 않습니다라고 말씀 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사들이 이런 날에 하루종일 밖에 서있으면 발이 시릴거라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강사, 관리원들이 업혹한 자연환경속에서도 자기 입부 를 성실히 수행하느라고 수고 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강사, 관리 원처녀들을 념두에 두시고 시내 에서 멋진 옷을 입고다닐 그 나이에 이런 산속에 들어와서 일하니 정말 장하다고 하실 때 길선희, 길경희동무들은 그만 오열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먹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크나 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이 있어 우리 강사들은 깊은 밀림속에서 도 랑만과 희열에 넘쳐 혁명 전적지관리와 강의에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것이 아니던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흰눈내리는 수도의 만수대언

덕으로는 꽃물결이 그칠새없이

어찌 이 가정들뿐이랴.

여기 해발고가 얼마나 되는가, 춥지는 않은가, 물은 어떤것을 마시는가, 하루 답사자는 몇명 이나 되는가, 잠자리는 어떻게 덥히는가 등을 일일이 물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은 인원 으로 산속에서 자체로 숙식하면 서 하루에도 많은 답사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자니 정말 수고가 많겠다고 하시였다. 그 러시면서 강사들의 건강을 위해 물정제기도 보내주고 목이 긴 털장화도 보내주겠다고 은정 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어버이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가 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그후 또다시 백두산지구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지연군의 책임일군을 부르시 고 큰 지함들을 내놓으시였다.

지함안에서는 뜻밖에도 멋쟁 이 녀자용털장화들이 나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사들 이 신을 털장화라고, 자신께서 량강도에 왔을 때 혁명전적지강 사들에게 털신발을 해결해주겠 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에 가지고 왔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오늘도 길선희, 길경희동무들 은 혁명전적지를 찾아오는 답사 자들앞에서 은정깊은 털장화에 깃든 사연을 이야기해주며 이렇 게 결의다지군 한다.

그 믿음,그 사랑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백두산의 만병초 처럼 억세게 피여 혁명전적지를 한생 지켜가려는것이 자기들의 삶의 목표이라고.

특파기자

길이 전해가리, 황금산의 력사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끌까지 이어나가며 장군님의 유훈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 우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 LICE.»

하늘처럼 믿고 살던 위대한 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온 나라가 비분에 몸부림치던 피눈물의 12월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3년이 되여온다.

흐르는 날과 달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으로 이어온 창성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맥박치고있는것은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 황금 산, 보물산의 새 력사를 더욱 빛

내여가려는 불타는 맹세이다. 창성땅에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인민 사랑을 더 활짝 꽃피워주시려고 몇해전 창성군을 또다시 찾아주 신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에 의해 창성땅은 다시

금 천지개벽되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6 0년대에 창성군 에서 지방경제발전의 본보기를 창조한것처럼 오늘도 창성군을 지방경제발전의 본보기로 꾸리 아뢰이였다.

는 사업을 계속 밀고나가야 한 다고 하시면서 내각과 성, 중앙 기관들에서 창성군을 꾸리는 사 업을 잘 도와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다음 해에도 창성군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여러차례나 주시면서 군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시 였으며 그후에는 창성군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끝낼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해주시

창성땅에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온 나라에 지방공업 발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가시 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 인 령도아래 빛나는 현실로 펼쳐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런석회의 50돐까지 창성 군건설을 끝낼데 대한 가르치심 을 주시면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또다시 새롭게 일신된 군의

근로자들은 이렇게 심장으로

위대한 장군님,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창성 땅이 또다시 천지개벽을 이룩하 였습니다!

천지개벽된 창성땅,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그쯘히 갖춘 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이며 푸른 추녀를 건듯 떠이고 어서 오라 부르는듯싶은 창성국수집과 창성각, 군문화회관, 미래원…

새 세기의 맛이 나게 즐비하 게 늘어선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는 햇복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인민들의 기쁨이 차고넘치고

진정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을 떠나 어찌 오늘의 창성 땅을 생각할수 있으라.

하기에 창성군인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덕 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갈 일념 안고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불길

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올해에도 수십가지의 천연식 료품들을 꽝꽝 생산하여 군안 의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 지한 식료공장과 식료가공공장 은 물론 직물공장, 종이공장을

《내 생각에는 립업복긴

속신발이 인민들이 좋아하는

량강도의 특산품인것만큼 신

발이름을 량강도솜장화라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사연깊은 솜신발의 이름은

이렇게 태여났다. 진정 솜신발

하나를 보시고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은 이렇듯 다심

하고 웅심깊은것이였다.

량강도솜장화!

비롯한 군안의 모든 지방공업 공장들에서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생산동음을 높이 울리며 질좋은 갖가지 식료가 공품들과 경공업제품들이 쏟아 져나와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 었다.

산골짜기들에서 흰구름인듯 염소뗴, 양뗴가 흐르는 옥포축 산전문협동농장에서는 축산업 발전에서 또다시 큰걸음을 내짚

창성군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더욱더 변모되여갈수록 군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모르고 산골군의 그 어디에나 더더욱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끓어번지고있다. 불타고있다.

정녕 지난 3년간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의 3년, 장군님의 유훈관철로 심장을 불태운 충정의 3년이

1 2월의 이 아침 창성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을 안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황금산, 보물산의 새 력사를 줄 기차게 이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 꽃송이마다 어린 불타는 총정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차넘치는 1 2월이다.

원산시 복막동 4 0인민반에 서 살고있는 장옥희녀성의 가정 에서도 어버이장군님을 그리는 절절한 마음담아 한송이한송이 향기로운 꽃들로 삼가 꽃바구니

를 엮는다. 한평생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전선길과 공장길, 농장길을 걷고 또 걸으

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못 견디는 그리움이 그들의 얼굴마다에 어려 있다.

어버이장군님!-하고 마음속으로 불러만 보아도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혁명사적지 건설장과 도안의 주요건설장들에 자 그마한 지성이나마 보탠것을 그토록 크게 여겨주시고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신 한량없는 그 사랑에 목이 메인다.

날이 가고 해가

온 나라에 어버이장군님에 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북창군 룡흥로동자구 119인민반 방성렬동무의 가정에서도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를 엮어

> 국가적명절과 기념일때마다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장군님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받들

가고있다.

흐르고있다.

온 나라 남녀로소가 한없는 그리움에 젖어 꽃다발과 꽃바구 니를 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엮어온 이들이다.

동상과 태양상을 찾고있다. 피눈물의 12월을 맞으며 저 멀리 백두산기슭으로부터 분계

연선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일 터와 마을, 가정들에서 끝없이 엮어지는 아름다운 꽃송이마다 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생 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여가려는 천만군 민의 불타는 충정과 맹세가 담

겨져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진 명



바뀔수록 더해만 원산시 복막동 40인민반 장옥희녀성의 가정



북창군 룡흥로동자구 119인민반 방성렬동무의 가정

면모를 보며 군안의 일군들과

발 공 장 자 들 신 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이름앞에서 한동안 눈길을 뗴지 이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리움을 안고 혜산신발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약속이나 한듯 사적기대앞에 모였다.

못 잊을 4년전 그날 몸소 일 터를 찾아주신 어버이장군님을 몸가까이 만나뵈온 재봉1직장 직장장 전순녀동무가 그들에게 량강도솜장화에 깃든 가슴뜨거 운 사연을 다시금 들려주었다.

주체 9 9 (2 0 1 0)년 5월 혜산신발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 고있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 주시다가 여러가지 형태의 솜신발들앞에서 걸음을 멈추시

신발을 손에 드시고 세심히 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목높은 림업용솜신》이라고 쓴 제품

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못하시였다.

이윽고 생산현장을 다 돌아보 시고 공장마당에 나서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문득 《림업용 솜신이라…》하고 조용히 되되 이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이하여 신발이름을 거듭 외우 시는지 영문을 알지 못하여 의아해하였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에서 만들 고있는 목이 긴 솜신발은 림업 로동자들뿐만아니라 추운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할것이라고,이 공장에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어울리게

서 인민들을 위하여 훌륭한것을 이름도 잘 붙여야 하겠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후 공장에서는 량강도솜장화 종합작업반을 내왔다. 그리고 20여대의 재봉기를 놓고 제화 흐름선과 수자식자동온도조절

장치를 제작설치하여 생산을 높 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다. 또한 인민들의 목소리 에 귀를 기울이며 그 질을

> 부단히 개선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 을 현지지도하신 후 오늘 까지 많은 량강도솜장화를 생산하여 혁명사적부문과 림업부문에 보내주었다고 하면서 전순녀동무는 이렇 게 말하였다.

《동무들! 우리모두 사연 깊은 량강도솜장화를 더 많 이 생산하여 우리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을 길이 빛내여갑시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 철 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 주신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 로, 위대한 스승으로 받들어 모시는것은 우리들의 응당한 본분이고 도리입니다. »

눈내리는 1 2월이면 성천강 출하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젖어든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폭설이 쏟아지는 12월의 추운 겨울날 에 이곳 사업소를 찾아주신 어버이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맵짠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리움으로 더더욱 뜨거워만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두벌농사, 세벌농사를 하

면 부침땅의 리용률을 2배,

3 배로 높여 같은 면적에서

농작불을 훨씬 더 많이 생산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욱더 사무치게 안겨오는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

을 삼가 우러르며 그는 이렇게

(어버이장군님, 저희들은 올

해에도 두벌,세벌농사를 잘

지어 농장앞에 맡겨진 계획을

그리고 저는 분에 넘치게도

마음속으로 아뢰이였다.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1 2월의 강추위는

대지를 얼구어도 장강군

읍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옥희동무의 가슴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같이 교시하시였다.

할수 있습니다.》

자애로운 그 모습 그립습니다 성천강출하사업소 일군들과

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 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놓고 물고기잡이와 가공을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

해주시였다. 떠나시기에 앞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으로도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기 바란 다고, 날씨가 더울 때 다시 와보 겠다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 음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지난 3년동안 많은 일을 해놓았다.

배수리와 어구보장에 힘을 넣

고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 여 해마다 물고기잡이계획을 넘 쳐 수행하였으며 가공품생산을 늘여 인민들에게 물고기와 물고 기가공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과장 정흥일, 선장들인 김태식, 김철수동무들과 사업소의 어로

공들은 어로전투를 힘있게 벌려 지난 1 1월말까지 올해 자기들 앞에 맡겨진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겨울철물고기 잡이전투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 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영예를 안고 작업반장 박혜옥 동무를 비롯한 가공작업반 로동 자들도 질좋은 물고기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있다. 더울 때 다시 와보겠다고 사랑의 약속을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자애로운 모습 이 안겨와 이곳 일군들과 종업 원들은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일터를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전변시켜

가고있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오늘도 1 2월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여가 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 의 가슴은 불같은 충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장강군 읍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옥희동무와 농장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뜨거운것을 삼키며 격정을 금 치 못하는 그의 눈앞으로 지나온

나날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자강도에서 먹는 문제를 풀자면 두벌농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 이 받들고 추운 겨울에 땅을 파제끼고 온실을 일떠세웠으며 감자, 강냉이모를 자래워 두벌

농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주체 8 8 (1 9 9 9) 년 6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 들은 꿈결에도 뵈옵고싶던 위대한 장군님을 농장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에 가야 볼줄 알았는데 감자꽃 을 여기서 보게 된다고 만족해 하시며 온실에서 생육기일을 수십일간 앞당겨 7월에 피는 감자꽃을 두벌농사포전에 피운 이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석달이 지난 9월 또다시 농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관리위원장 박옥 희동무가 두벌,세벌농사에서 기수, 선구자가 되도록 고무해 주시였으며 그후에도 뜨락또르 와 영농물자, 온실건설자재, 감 자종자를 보내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따사 로운 친어버이의 사랑과 믿음이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있었기에 오늘 농장의 두벌, 하얀 감자꽃들을 보시며 대홍단 세벌농사면적은 처음의 몇정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서

로부터 9배로 늘어났고 정보당 수확고는 1.5배이상 높아졌 다. 그리고 수백 m²의 태양열온 실이 천수백m²로 확장되였다. 벌방농장들에 비하면 크지 않

은 자그마한 산골농장에서 두벌,세벌농사를 했으면 얼마 나 했으라만 안겨지는 사랑과 믿음은 끝이 없었다.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의 기념촬영장에서 4 0 여년세월 땅과 거름을 다루며 곡식을 가꿔온 자기의 손을 따뜻이 잡 아주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대로 농사를 잘하라고 고무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어주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오늘 장강군 읍협동농장 은 온 나라가 다 아는 농 장으로. 박옥희동무는 박사관리위원장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것

아니랴. 사랑과 믿음에는 보답이 따르

는 법이다. 박옥희동무의 가슴속에는 불보다 뜨거운 보답의 맹세가 끓어번졌다. 하기에 그는 태양 열온실에서 두벌농사준비로 드 바쁜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있 다. 어느덧 귀밑머리에 흰서리 가 내렸지만 박옥희동무의 일솜

씨는 변함이 없다. 어찌 그의 마음뿐이라. 읍협 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심장은 하나의 마음으로 뜨겁게

고돗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의 유훈 을 빛나게 판철하여 쌀로써 우리 원수님을 결사용위해나가

겠습니다.

특파기자 동세 웅



0

0

Oŀ

П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이 업적 후손만대에 길이 빛나리

민족단합과 통일위업에 바쳐진 고귀한 한평생

그리움이 대하가 되여 삼천리강산에 굽이쳐흐르고있는 이 시각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으시고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해 그토록 헌신분투하시던 절세위인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며 그이의 불멸의 업적 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그럴수 록 우리 민족이 얼마나 탁월한 위인을 령도자로, 어버이로 모시고 살아왔으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이 민족의 자 주적운명개척에서 얼마나 거대한 의의 를 가지는 특출한것이였는가를 절감하 고있다.

진정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사상과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온 겨레를 하나로 묶어세워 자주통일운동을 승리 의 한길로 이끄신 민족의 자애로운 스승, 조국통일의 태양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 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 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입 니다.»

지금도 우리 겨레는 잊지 못한다.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커다란 상실의 아픔으로 온 나라가 피눈물의 바다에 잠겨있던 주체83(1994) 년 8월 어느날 8.15범민족대회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겨 레의 가슴속에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 의 열망을 북돋아주시고 조국통일위업 이 순간의 주저도 없이 전진할수 있도 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

그이께서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만두는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던 일군들 에게 이번 8.15범민족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회인것만큼 수령님의 생전의 뜻인 전민족대단결 의 사상을 받들어 우리 당의 령도밑

에 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간

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색있게

크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민족의 어버이의 서거로 하여 끝없는 슬픔속에 잠겨있던 때에 범민족대회가 성대히 개최되게 되였고 대회참가자들은 물론 온 겨레가 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통일의지 를 절감하면서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

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관철 을 위한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는 우리 민족의 통일애국운동이 시련과 난판을 뚫고 힘차게 전진할수 있도록 한 필승 의 힘의 원천이였다.

적운동으로 벌려나갈 결의를 굳게 다

민족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선군의 길을 걸으시던 그 나날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겠다고,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을 위해 자신께서 있다고 하시던 장군님의 그 말씀 오늘 도 우리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 다. 전선시찰의 나날 힘들 때가 많았고 눈보라에 차창이 가리워 한치앞도 가 려볼수 없는 그런 때도 많았다고, 그러 나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의 행 복이 있고 기어이 안아올 통일조국이

다시며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8. 1 5범민족대회와 같은 행사를 그 나는 전선길에 있을것이라고 하시던 그이의 절절하신 음성 이 강산에 메아 리치고있다.

> 선군령도의 그 길이 나라의 자주권 을 수호하고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을 안겨주는 진정한 애국의 길이였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명절날과 휴식 일이 따로 없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초강도의 강행군을 이어가시였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어버이장군님의 그 불같은 통일의지 와 끊임없는 애국헌신의 로고가 있어 우리 민족은 마침내 환희와 희망에 넘친 6. 1 5통일시대를 맞이하게 되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 회담을 준비하시던 그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번에 어떻 게 하나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 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해야 한다고, 그러자면 상봉에 서 무슨 문건이나 하나 내여 세상을 놀 래우는것보다 민족자주, 민족주체적립 장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실제적인 문 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 시면서 민족분렬사에 처음으로 되는 북남수뇌상봉을 자주통일의 전환적국 면을 여는 결정적계기로 되게 하기 위 한 방향과 방도, 원칙들을 환히 밝혀주

시였다. 온 겨레, 전세계를 격동시킨 력사적 인 평양상봉의 나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장 반세기가 넘는 우 리 민족의 분렬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 해와 단합의 새 장을 펼칠 확고부동한 의지를 안으시고 정력적인 활동을

맞잡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 가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와 (애국의 깊은 뜻과 조국통일에 대한 🤇 철석의 의지에 떠받들려 마침내 자주 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이 채 택되였으며 조국통일위업의 환희로운 사변들로 엮어진 6.15통일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활력있게 전진하는 북남관계와 더불어 평양에서 또 한차 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열리 / 고 10.4선언이 채택되여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넓은 길이 개척된것도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빛나는 결실이였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 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신심드높이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과감 히 물리치며 단결하고 련대련합하여 통일애국운동을 줄기차게 다그쳐나가 고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주시였기때문이다.

민족애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

자나깨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 며 사색도 실천도 열정도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길에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정녕 민족의 영원한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하기에 그리움의 1 2월을 맞는 북 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이룩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필생 의 념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려 는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

본사기자 장윤 남는 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는 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백두령장의 단호한 선언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판문점

주체 8 5 (1 9 9 6)년 1 1 월 2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 였다. 당시로 말하면 미제와 괴 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책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던 매우 위 험천만한 시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발자 0 들의 광란을 부나비들의 성화 만큼도 여기지 않으시고 태연 자약한 자세로 판문점을 돌아

주체 8 7 (1 9 9 8)년 4 월 1 5일 선군장정을 이어가시 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으시고 최전연의 어느 한 부대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태양절을 맞는 부대장병들이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워할것 같 아서 찾아왔다고 하시며 여기에 오니 조국통일을 위해 그리도 마음쓰시던 수령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갈라진

귀

주체 8 9 (2 0 0 0)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가 운데서도 6.15가 열어준 통일의 대통로를 따라 평양을 찾아온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 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그날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은 명쾌한 론리와 즐거 운 유모아로 조국통일과 북남 관계개선에서 나서는 문제들

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려는 념원으로부터

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세

계전쟁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력사적인 장소이면서도

민족의 분렬을 상징하는 곳이 라고, 자신께서는 분렬의 상징 해마다 통일행사가 진행되는 이곳에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수령님의 친필비를 세우게

다. 그러시면서 백두산에서 항 일대전의 총성을 자장가로 들으며 자라난 빨찌산의 아들인 나는 민족의 통일위업 을 반드시 성취할것이라고 철의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말씀은 겨레에게는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해주고 분렬 주의세력에게는 무서운 공포를 안겨준 탁월한 선군령장의 필승의 뢰성이였다.

뜻 깊 은 대 양절에도

조국에 대한 생각으로 식사도 없다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오 제대로 못 드시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던 어버이수령님 생각이 북받쳐오 르시는듯 추연한 표정을 지으 시며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지 난날 산에서 싸울 때에도 저렇 게 밤새가 울면 짓밟힌 조국인 민들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 는데 분계선이 가까운 여기에 서 또다시 저 밤새소리를 들으 니 남녘동포들생각에 잠들수가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

에 매혹되여 그이께 장군님의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고 무랍

없는 질문을 올리였다. 언론사

대표단 성원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즉석에

서 그들에게 우리의 힘의 원천

은 두가지이다, 첫째가 일심단

결이고 둘째가 군력이다. 군력

이 있어야 외국과의 관계를 자

주적립장에서 풀어나갈수 있

래도록 숙소마당가를 거니시였 다고, 정말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많 은 고생을 하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르며 인민군 장병들은 조국통일에 대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과 확고부동한 의지를 더욱 깊이 새겨안았다.

그러시면서 자기를 지켜줄 힘

이 없으면 민족의 운명이 외세

에게 롱락당하게 된다고 간곡

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뜻깊은 말씀 을 받아안으며 남조선언론사대 표단 성원들은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절세위인의 가르치심은 그들 에게 민족자주위업을 개척해나 갈수 있는 강력한 힘은 다름아 닌 선군에 있다는 고귀한 진리 를 새겨주었다.

본사기자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선 군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하 는 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축복해주시며 오늘도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그 리움과 흠모의 정이 더더욱 차넘치고있다.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고매한 덕망으

로 력사에 불멸할 위대한 ■ 업적을 쌓으시고 인류의 절대 적인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을 우리 르는 남녘겨레의 가슴에도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이 넘쳐흐 르고있다.

서울의 한 정치학교수는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인덕 정치에 온넋이 끌린다고 하면 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 따르지 않으랴.》 로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 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을 근로 인민의 심부름군이라고 하시 며 자신의 생활신조는 〈인민 을 위하여 복무함!〉이라고 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명절날이나 일요일에도 지 어는 자신의 탄생일까지 어느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인민의 복락을 위해 군부대와 공장,

Ш 농촌과 어촌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 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 이처 럼 헌신하신 령도자가 또 어 디에 있겠는가.》

남조선 의류학회의 한 성원은

바옷, 바로 거기에서 위인으로서의 풍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고계신 그이의 태양의 모습이 찬연히 비쳐오 는것이 아니겠는가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품에 한없이 매혹 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이민위천은 김정일장군님의 좌우명 이다. 나는 김정일장군님의 수수한 잠바옷차림에서 인민에 대한 그이의 헌신의 절정을 보았다. 그이께서는 휴식일이나 명절날에도 잠바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그 길에서 잠간 주무시는 쪽잠을 잠중의 제일 단잠으로 여기시였고 로상에서 드시는 주먹밥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 라고 하시였다.

이처럼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던 위대한 령도자를 북 녘인민들이 어찌 친어버이라 부르며

부산에서 열린 어느 한 토론회에 참가한 진보단체의 한 인사는 을 위한 사랑의 정치를 펴시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겨레를 한품에 안아주시는 하늘의 태양과 같은분이 시다. 세상천지를 다 둘러보아도 우 리 단군민족이 낳은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과 같이 출중하신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민족 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넋은 겨레의 심장에 남아 영원히 빛 날것이라고 말하였다.

한 퇴직교수는 《김정일령수님께서 는 인민의 충복으로 일하는 거기에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하시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정녕 민중을 위합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 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그분의 정치신조였다. 참으로 그이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입으신 수수한 잠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였다.》고 뜨겁게 말하였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 이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또 하나의 통일대강인 10.4선언이 발표되던 격동적인 나날을 돌이켜보 며 남조선의 한 기업가는 당시 자기 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뵈옵는 순간 이분이 바로 세 상에서 민중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민 중정치의 화원을 가꾸어가시는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시구나 하고 생각하 였다. 그리고 통일은 이렇게 되는구 나 하고도 생각하며 감탄과 함께 무아 경에 잠기기도 했다. 그때 인간중의 인간, 위인중의 위인을 뵈옵는 순간만 은 어둡던 서울천지도 환해보였다.》

남조선의 량심수후원회의 한 회원 은 자기의 글에서 이 세상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위대한 장군님 의 한없이 따사로운 동포애와 같은 사랑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를 위 해 목숨바쳐 싸우는것은 민족성원들 의 당연한 의무이다.그런데도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애국애족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운명을 끝 까지 책임져주시며 세상을 떠난 후에 도 영생하도록 뜨거운 사랑을 기울이 시였다.정녕 김정일령도자님의 동포애는 한없이 뜨겁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처럼 영원한 사랑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로 천세만세 길이 받들어모시려는 남녘겨레의 뜨거운 마음은 12월과 더불어 위인칭송의 메아리, 그리움의 메아리되여 삼천리 강토에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라 영 국 가슴저미는 그날로부터 어느덧 세 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환하신 태양 토로한 회고담들을 대서특필하였

《2011년 12월 28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거행 된 평양의 하늘은 통곡과 비애, 슬픔

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북녘동포모두에게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보도가 전 해진 때로부터 열흘이 지난 오늘 전 체 조선인민은 그토록 열렬히 사랑 하고 다함없이 흠모하여마지 않던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하는 쓰라린 아픔을 당해야만 했다.》

이것은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가 가슴터지는 영결 의 아픔을 못이겨 이 나라 천만

군민이 비애에 몸부 ♪ 사무치는 그리움, 림치던 세해전 12 월의 피눈물의 광경 을 《김정일국방위원장 영결식, 하늘도 울고 땅 도 울다》라는 제목으로 전했던 기사의 내용이다.

우리곁을 떠나시였다는 청천벽력같 민족사에 영원불멸할것이다.》라고 이끌어가는 도서《백두산전설집》, 장군님의 태양의 력사는 영원하리라 은 비보앞에서 화산처럼 터져오르던 겨레의 곡성은 얼마나 처절했던가. 대국상의 비보를 알리는 특별방송이 나가자마자 남조선의 《다음》, 《네이 버》를 비롯한 인터네트싸이트들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이 비통함, 국방위원장님 서거에 가슴이 멘 다. 》, 《안타깝다, 같이 슬퍼하련다.》 등의 각종 추모글들이 무려 12만 여건이나 게재되였다. 그 무엇으로 도 가실수 없는 크나큰 상실의 아픔 에 온 겨레 아니 인류가 몸부림치며 《시대의 거성이 떨어졌다.》고.《지구

가 자기의 무게를 잃었다. 》고 애통

함을 금치 못했던 피눈물의 12월,

해가 되여온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 을 못 잊어 그리는 남녘겨레의 마음 은 더욱 세차게 불타올랐으니 정녕 지나온 3년세월은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나날이

였다. 어버이장군님 서거 1 돐을 계기로 면 그가 누구이건, 어디에 살건 관계

심장의 고백을 터쳤다.

6. 1 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일을 계기로 발표한

글들에서 《조국통일의 확고한 리정

표를 안겨주신 김정일장군님의 력사

적공적은 민중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것이다.》,《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겨레와 민중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김정일장군님,

그이는 진정 력사가 알지 못하는

의 미소, 자애로운 영상을 못 잊어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한 한 대학교수는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6.15통일시대를 돌이켜보며 《공 동선언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없이 과거를 백지화하고 단결, 협력 하게 하신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고조시키고있다. 그리움에 불타는

그리는 마음들은 남조선 각지에서 널리 보급되는 문예작품들에도 비껴 있다.최근 남조선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바치신 불면불휴의 로고와 쌓으신 거대한 민족사적업적을 찬양하는 록 화편집물 《통일령수 김정일》, 《7천 만의 령도자 김정일장군》등이 보급 되고 노래 《6.15통일의 배》,

《야전차에 흐르는 4계절》등이 각계층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면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열기를 부쩍

《통일리정표》,《위인의 통일경륜》

과 시집 《백두산의 품》도 출판, 보

남조선의 언론들도 민족의 어버이

《자주민보》는 글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혁명정신과

업적은 력사와 함께 영원할것》이라

고 격찬하였으며 인터네트홈페지

《동북아의 문》은 《김정일국방위원장

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표제

밑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인사

에 대한 그리움과 칭송의 목소리를

급되였다.

높이고있다.

다.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는 《강 철궤도우에 다시 울릴 새벽의 동음》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버이장군님 은 위대한 혁명가이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완

성과 조국통일을 위해 난판과 역경 을 헤치시고 간고분투하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승리의 미래를 사랑하신 혁명가이시였다. 그이께서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여 그 인민행렬차의 새벽동음은 다시

국통일의 려명을 바 라보며 쉬지 않고 달 려온 두줄기 강철궤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이 낳은 빛나는 결실 뜨거운 마음들을 위대한 선군령장 영생을 바라는 남녘의 마음들은 는 확신으로 이어지고있다. 지금 조선의 정세분석가들과 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상과 령도에 기초한 정치를 펴고 계시며 6.15 공동선언, 10.4선 언에 립각한 통일로선을 한치의 드림 없이 견지해나가신다.》고 한결같이

> 격찬하고있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남조선인민 들의 다함없는 그리움과 흠모의 정 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세차게 분출하고있으며 장군님은 우리 겨 레의 심장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실 것이다.

본사기자 은 정 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 성 대변인은 미국의 반공화국《인 권》소동이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 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5일 조 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 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미국이 반공화국《인권》공

세에 점점 더 열을 올리고있다. 지난 한주일동안에만 하여도 미국무장관을 위수로 하여 국무 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민주주의, 인권, 로동담당 차판보, 《북조선인권특사》, 대조 선정책특별대표라는자들이 줄줄 이 나서서 《인권문제》를 거들며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는 발언들 을 꺼리낌없이 늘어놓았다.

국무성이 반공화국《인권》단체 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라는것을 발표하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미국가정보국 장관과 국무장관을 우리에 대한 내부시 탐과 비난자료수집에로 내모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채택하

욱 확대하려는 책동이 로골화되 고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미국이 반 공화국《인권》압력소동을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한 공 간으로 삼고 그것을 정책화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책동은 우리와 미국사 이의 자주권존중과 평화공존을 공약한 6자회담 9. 19공동성명을 줴버린것으로 된다.

미국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하여 우리의 제도를 전복하는데 집 착하는 조건에서 조선반도비핵화 는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조선반도비핵화에 합의 한것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 협을 제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지 미국 에 먹히우자고 한것이 아니다. 조미《인권》대결전이 일정에 오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게 되였다. 미국이 우리 나라에 억류되였

던 미국인들의 석방을 놓고 횡설 수설하고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해서가 아니 라 미국과의 《인권》대결전에 림하 기 위하여 진행한 하나의 청소작 업에 불과한것이였다.

사실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우 리가 미국보다 할 말이 훨씬 더 많다.

제 집안에서 터진 미중앙정보 국의 반인륜적인 고문만행과 백 인경찰의 인종차별행위추문으로 심각한 곤경에 빠져들고있는것도 미국이고 인신매매범죄자들에게 유괴되였다가 돌아온 우리 청소 년들을 놓고 랑설을 내돌렸다가 망신을 당한것도 미국과 그 앞잡

이번에 미국무장관 케리가 저 들이 반공화국《인권》소동에 써먹 기 위해 끌고다니고있는 《탈북자》

는 등 우리와의 《인권》대결을 더 본 오늘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협잡군놈을 공개적으로 추어올리 는 구역질나는 추태를 부린것은 그가 우리에 대한 적대시책동에 환장하여 분별을 잃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이전 국무장관 포웰이 고문으 로 정보수집과 조작을 일삼는 미 중앙정보국의 거짓말에 놀아났다 면 오늘 케리는 《탈북자》 한놈의 거짓말에 놀아나 어리석은 바보 짓을 하고있다.

우리는 이미 해당한 경로를 통 하여 케리에게 문제의 《탈북자》협 잡군의 정체를 폭로한 동영상자 료를 보내주었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

리 제도를 전복하겠다는것은 정 책이 아니라 몽상에 불과하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따 르는 우리의 미증유의 초강경대 응전의 맛을 톡톡히 보게 될것이

며 조선반도비핵화가 파탄되는

책임도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다.

는것은 절대로 스쳐지날수 없다.

들이민 집권자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중 근 그것이 로태우《정권》의 《한민족공동 요임무니, 《북인권》이니 하고 횡설수설하 체통일방안》을 계승하는것이라고 광고하

고있는 사실도 그것을 말해준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것이 과 연 어떤것인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 방안에 전면배치되는 《흡수통일》방안인 것으로 하여 오래전에 온 겨레의 한결같 은 규탄배격을 받고 력사의 오물통에 처 박힌 곰팡내나는 대결문서가 바로 《한민 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이런 골동품을 모방하여 꾸며내는 《통일헌장》이라는것 이 썩어빠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화 국북반부에 부식시킬것을 노린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결국 괴 뢰들의 《통일헌장》조작놀음은 민족의 화 해와 단합,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가로막 으면서 북과 남사이의 체제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기 위한 술책이다. 괴뢰집권자가 《통일의 미래》를 위해 《북인권》문제가 반드시 개선되여야 한다 고 나발질한것도 용납할수 없다. 이 악담 에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통일》이 라는 말로 정당화하며 그것을 더욱 발광 적으로 벌리려는 괴뢰패당의 흉악한 심 보가 그대로 비껴있다. 비렬하고 추악한 이라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제도 《인권》모략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일심단결을 해치기 위한 남조선괴뢰들의

들어서고있다. 존엄높은 우리의 사회주 의제도를 극도로 적대시하면서 어떻게 하나 압살하고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해보 려는 역적무리들의 범죄적계책은 그 무 엇으로도 숨길수 없다.

괴뢰패당이 《통일헌장》을 제정한다 어 쩐다 하며 련방제통일방안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서는것을 우리 겨레는 추호도 묵과하지 않을것이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나라의 통일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는 조국통일 3대헌장과 6.15공동 선언, 10.4선언에 기초하여 이룩되여 야 한다. 이것을 외면하며 불순한 《통일 헌장》조작놀음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 의 민족사적요구를 거스르는 괴뢰패당은 절대로 무사할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은 영원히 실현될수 없는 어리석은 망상이다. 분노 한 민심과 인민들의 대중적항거에 의해 언제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가련한 처지에 빠진 괴뢰패당이 그 주제 에 아직 속이 살아 병든 까마귀 어물전 돌듯 우리를 넘겨다보며 잡소리를 줴치 는것이야말로 가판이 아닐수 없다.

괴뢰패당은 내외의 조소를 자아내는 허

면하고있다고 하면서 부

반공화국뻬라살포를 악 법 조 작 을

이들이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 단죄하였다. 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통 일교육문화쎈터가 10일 대전에 서 모임을 가지고 괴뢰패당의 《북인권법》조작책동을 반대하 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북에 대 한 삐라살포는 심리전의 대표적

삐라살포가 남북관계를 파탄시키 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삐라살 포행위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북인권법》제정과 밀접한 련관이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 법은 사실상 《북인권재단》 금으로 삐라살포를 지원하기 수단이며 분명한 전쟁행위라고 의 설립을 위한것이며 재단의 기 위한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

본사업에는 《탈북자》단체들에 최근 계속되는 보수단체들의 대한 지원항목이 들어있다고 밝

이 항목때문에 삐라살포에 당 국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태가 빚 어지게 될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결국 《북인권법》은 민중세

이것은 남북대결의 위험성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악법의 제 정을 기어코 막아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그들은 《북인권법》의 정체와 위 험성을 내외에 널리 알려야 할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제 처지도 모르는자들의 얼마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터 《자유민주주의》에 부합되게 《통일헌 3차회의라는것이 열렸다. 여기에 코를 장》을 만들겠다고 떠들어온 괴뢰들이 최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원한 태양 들을 만나주시는 사진문헌들을 모시

이시다. 》라고 찬탄의 목소리를 높이 고 그들이 절세의 위인께 매혹되여

던 끝에 《통일후의 헌법》을 연구하라고 떠들어댔다. 집권자의 추동에 따라 괴뢰 패당은 《통일헌장》시안이라는것을 올해 안으로 작성하며 다음해 상반기에 공청 회라는것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야말 로 체제대결에 환장한자들의 히스테리적 팡기가 아닐수 없다. 괴뢰들의 망동은 범 죄적인 체제통일야망의 뚜렷한 발로로서 민족의 통일념원에 대한 란폭한 도전이 며 동족대결소동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 한 악랄한 술책이다.

괴뢰패당이 그 무슨 《통일대비》를 운운 하며 《대통령》직속으로 조작해낸 《통일준 비위원회》라는것은 체제통일야망을 정책 화하여 실행하기 위한 모략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북남대결에 환장한 보수떨거지들 과 반공화국삐라살포를 전문으로 하는 인 간쓰레기들이 씨글거리고있는 이 더러운 곳에서 울려나오는 수작들은 듣기조차 역 겹다. 하지만 괴뢰패당이 그 무슨 《통일헌 장》이니 뭐니 하며 여론을 어지럽히고있

남조선괴뢰들이 들고나온 《통일헌장》 를 해치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이미전부 책동은 그야말로 최후발악적인 단계에

황한 개꿈을 작작 꾸고 력사와 민족의 준 엄한 심판을 기다리는것이 좋을것이다. 심 철 엿

남조선 《KBS》방송에 **남조선 각계가 대결조치의 해제를 요구** 그러나 당국이 이를 외의하면 남조선의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5.24조치해 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경제협력에 참가하였던 수많 당한 제재조치를 시급히 해제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은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제를 위한 경협, 종교, 시민단 【조선중앙통신】 체련대》가 12일 서울의 광화 당국의 《5.24조치》로 남북 입었다고 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